

모두 발언

2023. 11. 14. (火) 15:00

금융투자협회(23F)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 선 오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선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증권사 감사님, 준법감시인님, 리스크 담당 임원님

그리고 협회 본부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유난히 증권업계에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CFD發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하여

현장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한편,

몇 가지 당부사항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주요 논의내용 및 당부 사항

우선, 금융감독원도 일련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본시장의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증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관행개선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 제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금융알선, PF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과 같이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사고 건수(금액) : '19년~'22년 7.8건(143억원) → '23년 14건(668억원)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누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내부통제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재,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년간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이 급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추구에 가려져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
IB임직원의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을 다수 발견하였으며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IB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들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IB부문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IB부문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CB, 부동산PF 등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IB부문 뿐만 아니라 리테일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심사시
관련 리스크에 대해 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미수거래, 신용융자, 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리스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숨방망이 처벌하고 종결하는 사례가
그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사고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내부통제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되어야 할 사안이며
경영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의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과 개선점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여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Ⅲ 맺음말

CFD와 영풍제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손실규모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수사대상에 올라 평판이 저하되는 등
Legal-Risk에 노출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하여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업계와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